

# 광양시, 여성 경력단절 막는다... 3단계 고용유지 사업 시행

새해 첫 월급데이 등 고용안정 지원 하반기 정부 부처 공모사업 응모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책 확대

#올해로 40을 넘긴 A씨는 일찍이 유아교육과를 졸업한 후 타지에 가서 결혼해 아이를 낳고 생활하던 중 남편의 사업 실패로, 지금은 친정인 광양으로 내려와 홀로 자녀를 양육하며 생활한다. 당장 취업이 시급한 상황이었지만 결혼 전 사회 경험이 적었고, 경력단절 기간도 길어 취업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동 주민센터 복지상담팀의 연계로 광양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광양새일센터) 집단상담을 권유받았다. A씨는 광양새일센터 상담을 통해 이력서, 자기소개서 쓰는 요령, 모의 면접, 직장 예절 등을 배우며 자존감을 높일 수 있었으며, 취업상담사의 심층상담과 동행면접 등 적극적인 취업 지원으로 국공립어린이집에 채용되어 한 가정의 가장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광양새일센터는 2009년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의 지원을 받아 경력단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교육 현장

/광양시

절 여성 취업 알선장구를 개설한 후 2011년부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로 지정되면서 광양시 미취업 여성의 취업에 필요한 상담, 직업교육 훈련, 취업 알선과 취업 후 사후관리 취업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난해 광양새일센터는 구인1283건, 구직 2752건, 취업 955명을 발굴했다. 특히 전체 취업자의 75%인 718명이 정규직으로 취업하는 성과를 거뒀다.

경력단절 여성의 근로 의욕 고취와

구직 능력 향상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과정의 경우, 수료 인원 130명 중 30명이 직장에 받을 들어 23%의 취업률을 달성했다.

광양새일센터 관계자는 실무에 필요한 능력은 갖출 수 있지만, 의욕이 없는 사람이 취업하기는 불가능하다. 재취업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자신감과 의지'를 꼽았다.

센터는 취업 대비, 직장 적응, 재복귀지원 등 3가지 종류의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해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경력단절 여성이 자신감을 회복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광양시는 취업 후 직장동료 및 상사와의 갈등, 업무 부적응, 가사 및 자녀 양육부담 등의 이유로 다시 경력단절이 되지 않도록 일자리 안착을 위한 고용유지 지원 프로그램으로 3단계 사후관리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3단계 사후관리 지원사업은 1단계 '새해 첫 월급데이'와 2단계 '엄마와 함께하는 웨다클래스', 마지막 단계 '자녀 학습 진로 코칭' 등 단계별로 진행해 고용 안정을 돕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이밖에 취업 여성과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경력단절 예방서비스와 경력단절 위기 상황에서 재직 여성의 이탈을 예방하기 위한 경력단절 예방사업을 올 하반기 정부 부처의 공모사업에 응모해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 지원정책을 확대할 계획이다.

/광양(전남)=김용환 기자 jjacecom@metroseoul.co.kr



외달도 해수욕장

/목포시

## 목포시

### 10일 외달도 해수욕장 개장

목포시가 '슬로시티 섬' 외달도 해수욕장과 해변을 오는 10일 개장한다.

시는 해수욕장 바닥매트 교체를 비롯해 대형 그늘막·해수 공급시설·샤워장 및 해수욕장 편의시설 등을 정비해 외달도를 찾는 관광객이 편하게 피서를 즐길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시 관계자는 "방역에 최선을 다해 코로나로 지친 관광객이 안심하고 피서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 2658회 출동, 임무성공률 94% 일 평균 100km 날며 환자 이송

## 경북닥터헬기 출범 8주년

2015년 첫 임무... 30만km 운행 지역별 이송현황 영주 557건 최다

경북닥터헬기가 출범 8주년을 맞았다.

5일 안동병원에 따르면 경북닥터헬기는 8년 동안 하루 평균 100km를 날며 응급환자 이송과 치료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경북닥터헬기는 2013년 7월 4일 첫 임무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운행거리가 대략 30만km로 지구둘레(4만km)를 7바퀴 돌고도 남는 거리다.

경북닥터헬기는 지금까지 3379회 요청을 받아 2658회 출동했고, 이 중 2492회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166회는 운항 도중 갑작스런 기상변화 및 요청환자 상태변화 등으로 임무를 중단했다. 1회 출동해 환자 2명을 동시에 이송한 경우도 6차례다. 1일 최다 출동 기록은 2019년 5월 3일로 이날 6회 출동했다. /최규훈 기자 ch9720@



경북닥터헬기

안동병원 항공의료팀이 2013년 7월 5일부터 지난날 30일까지 헬기이송환자 2498명을 분류한 결과 중증의상 환자가 681명(27.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뇌질환 561명(22.5%), 심장질환 368명(14.7%), 호흡곤란, 입산부 등 기타환자 888명(35.5%) 순이다.

지역별 이송현황은 영주 557건(22.4%), 문경 325건(13.0%), 봉화 308건(12.4%), 울진 249건(10.0%), 청송 239건(9.6%), 영양 231건(9.3%), 의성 208건(8.3%), 예천 174건(7.0%), 상주 83건(3.3%) 등이다. /장성(전남)=김태수 기자

## 장성군 '장성사랑상품권' 발행액 505억 집계

올해 상반기만 210억규모 발행

장성군이 2019년 개시 이래 지금까지 총 505억원 규모의 지역화폐 '장성사랑상품권'을 발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군에 따르면 2019년 가을부터 작년 까지 장성사랑상품권 발행액은 총 295억원이었다. 올해 발행액은 상반기에

만 210억원 규모를 기록하며 수직 상승했다. 군은 이 가운데 코로나19 재난지원금과 놓여진 공익수당 등 정책수당으로 100억원을 지급했고 장성군은 올해 초, 감염병 대응의 장기화로 인해 위축된 지역 상권을 회복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경감시키기 위해 전 군민에게 장성사랑상품권 10만원을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했다. /장성(전남)=김태수 기자

## 나주시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200만원 지원

결혼장려금 제도 확대 개편

나주시가 청년층의 결혼 장려와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결혼 장려금' 제도 지원 금액을 200만원으로 확대개편했다.

전라남도나주시는 지역에 거주하는 만49세 이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기존 결혼장려금 제도를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제도로 개편했다.

지원 대상은 만 49세 이하인 신혼부부로 2021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해야 하며 '신고일 기준 1년 이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또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 혼인신고일 전 전라남도에 1년 이상(나주시는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축하금 신청 시에는 부부 모두가 나주시 관내 주소

지를 두고 있어야 한다.

위 조건을 충족한 신혼부부 남·녀는 각각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 포함) 각 1부, (상세)혼인관계증명서 1부, 신분증, 신청자 통장사본 등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나주시는 자격 요건 검토 후 신청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결혼 축하금 200만원을 분할 없이 일시 지급할 예정이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나주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튼 청년 신혼부부들의 새 출발을 응원하고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와 청년인구 유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실용적인 정책을 추진해가겠다"고 밝혔다. /나주(전남)=김태수 기자 ts7080@

## 청송군, 치매 친화 생활환경 조성 앞장

2019년부터 치매보듬 마을 사업 추진 치매검진 등 다양한 프로그램 연계

청송군이 2019년부터 '치매보듬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며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치매보듬마을 조성사업'은 치매가 있어도 자신이 살던 곳에서 이웃의 관심과 배려로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사업으로, 청송군은 매년 한 마을을 지정하여 운영 중이다.

2019년 부남면 대전3리 마을을 시작으로 2020년에는 파천면 신기1리, 2021년은 주왕산면 상평리를 선정하여 지역주민참여, 치매이해, 가족지원, 치매예방, 인지환경개선 등 다양



치매보듬마을 조성사업에 선정된 상평리 마을

한 분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치매보듬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 및 서포터즈 교육을 가지는 등 치매에 대한 이해를 돕고, 치매예방을 위한 조기검진과 다양한 인지강화프로그램도 연계하고 있다. /청송(경북)=김귀열 기자 gold6830112@

## 담양군

### 풍수해보험료 80% 지원

담양군은 5일 자연재난으로부터 소상공인의 재산을 보호하고 현실적인 보상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풍수해보험 가입 집중 홍보에 나선다.

풍수해보험은 태풍·호우·대설·지진 등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를 보상해주는 정책보험으로,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해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이 가능하다.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며, 보상금액은 상가의 경우 1억 원, 공장의 경우 1.5억 원 한도로 재고자산은 5천만 원 내에서 실손보상이 가능하다.

담양군 관계자는 "자연재해는 예상치 못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지역의 많은 소상공인들이 가입해 연재해로부터 재산과 가족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담양(전남)=최영상 기자 dudtkd2343@

## 보성군

### 연말까지 '사랑의 밥차' 운영

보성군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의 일상 회복을 위해 식사 운영을 재개했다.

또한, 매주 수요일에 경로당 이용자 수가 30명 이상인 경로당(30개소)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총 30회 '사랑의 밥차'를 운영할 예정이다.

보성군은 고령화와 거동이 불편한 독거 어르신이 증가함에 따라 찾아가는 '사랑의 밥차' 사업을 운영해 맞춤형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으나, 코로나19 상황으로 운영을 중단한 상황이었다.

최근 75세 이상 백신 접종이 마무리되고, 보성군 백신접종률 50% 돌파,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등이 시행됨에 따라 경로당 내 식사 재개를 결정했다. /보성(전남)=문쌍환 기자 m8527188@